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예수 부활 대축일 교구장 메시지



##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의 삶’을 ...

‘쇄신의 삶’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묵시 21,5)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쇄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2코린 5,17) 그리고 또 ‘쇄신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되살아나는 “새로운 삶”(로마 6,4)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쇄신의 삶’이 부활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갈라 2,19; 로마 6,4 참조)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라 5,24)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데,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죄에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따라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금욕생활과 참회생활을 통해 죄의 결과와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죄의 흔적들에 죽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세례인 고해성사를 통해 날마다 범하는 죄에 있어서 다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의 중심에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의 신비,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례적으로 부활 대축일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탄생의 이 신비를 다시 살게 해줍니다. 사순절의 참회와 부활 판공성사로 우리가 죄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신의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죄에 죽어야’하는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긴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에 죽는다는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 ‘형제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당신과 동일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죄에 죽는다는 것’은 형제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며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죄에 죽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이주민들과 난민들, 헐벗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억울하게 갇히거나 죽은 사람들 등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투(Me Too)’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하는 일, 그리고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에 함께 하며 그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일도 ‘형제를 위해 죄에 죽는 삶’,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초대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당의 썰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각자 처해진 처지에 따라 ‘썰신의 삶’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썰신의 삶’을 새롭게 살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당의 썰신을 위해 어떠한 ‘썰신의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되는지를 각자 한 번 찾아봅시다. 무엇보다도 본당 공동체를 참 ‘친교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제를 위해 ‘죄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썰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썰신의 삶’으로 부활의 축복과 은총을 맘껏 얻어 누립시다.

주님, 저희 모두가 ‘썰신의 삶’을 살아 본당의 썰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2018년 4월 1일 예수 부활 대축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굴려져 버린 돌- 일치와 평화에로의 부활



“표어하기 지겨우니, 이제 그냥 통일해라.” 제주도의 한 초등학생이 만든 표어 내용입니다. 초등학생의 눈으로 봐도 남과 북의 긴장과 불안감 조성, 이를 이용한 어른들의 정략적 계산이 지겨웠거나 보기 싫었나 봅니다.

지난 3월 초(5~6일)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회담을 하였고, 남한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주었습니다. 그전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의 대남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내려왔고 대통령을 만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은 작년 독일에서 대북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과 대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화답하듯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 참여와 남북 동시입장, 단일팀, 특사단 파견에 대한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의 두 지도자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물밑에서의 많은 실무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실상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에 남.북한 동시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평양 올림픽이니, 김정은의 지시에 우리 정부가 놀아나니 등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노력은 좌절되지 않았고 그 결실이 조금씩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4월 말 3차 정상 회담 약속,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이를 토대로 한 북미 대화 의지 표명 등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생존을 보장해 준다면 핵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을 하자는 것이지요.

---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로만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평화와 공생의 삶을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갈라져 살아온 70여년을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겨 물리쳐야하는 적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삶이 많이 멀어졌고, 말도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과 북은 그 뿌리가 같은 한 민족입니다. 조상이 같고 말이 같고 문화가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미워하지말고 분열과 갈등의 관계에서 조금씩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분열에서 일치으로, 다툼에서 평화으로, 속박에서 자유으로...이것이 파스카이교 예수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캄캄하고 어둡고 두려운 동굴의 돌을 밀어버리고 밝고 따뜻하고 희망찬 곳으로 나오셨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분열과 다툼과 속박, 어둠의 세력에서 생명과 일치와 평화와 자유, 빛의 세력으로 당당히 나오신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할 미래가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한 길입니다. 갈등과 분열, 적대감과 속박, 공멸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 생명과 일치, 공생과 상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부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아버린 무겁고 큰 돌, 이것은 외부의 세력이고, 또한 우리 내부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수많은 세력들의 도전과 방해로 이겨낼 때 우리의 힘으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무겁고 큰 돌을 굴러내고 평화와 통일이라는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굴러내고 생명과 빛의 세상으로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인의 희망이고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돌을 굴러버리고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밤을 지냅시다.

**송현동 본당 배인호 베드로 신부**



## 부활 성야 전례

- 주례자와 해설자는 미리 전례 안내를 읽고 준비한다.
- 교우들은 사용할 초를 미리 준비한다.
- 주례자가 전례를 시작할 때 불을 모두 끈다. (손전등 준비)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어 인류에게 참된 해방과 승리를 주신 예수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 제 1부 : 빛의 예식 :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빛의 예식 안내 :**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이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없이 주례자는 화로가 준비된 곳으로 나와서, 불을 축복하는 기도를 바친다.>

#### 불 축복 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 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 불을 +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불 축복 후 주례자는 먼저 파스카 초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파스카 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외치면(3번) 교우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응답한다. 두 번째 외침 후 교우들은 파스카 초에서 불을 받아 자기 초에 붙인다. 세 번째 외침 후 성당 안의 불을 모두 끈다.>

**파스카 찬송 :**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예식서 213-216쪽

### 제 2부 : 말씀의 전례(모두 앉고, 개인 초의 촛불을 끈다.)

**말씀의 전례 안내 :**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

**제 1 독서 : 창세기 1장 1절-2장 2절**

**안 내 :**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만물은 태어나고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온갖 만물에게 당신 말씀과 영을 넣어 주시어 각각에 맞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1독서 후 기도> :** (모두 일어선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 3 독서 : 탈출기 14장 15절-15장 1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생각하고 바로 화답송을 한다.>**

**화답송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3독서 후 기도> :** (모두 일어선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을 오늘도 보여 주시니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새로 나는 세례의 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어 온 세상 사람이 선택된 민족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7 독서 : 예제키엘 36장 16절-17절, 18절-28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찢기고 더럽혀진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 주십니다.

**묵 상 :**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도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주시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화답송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7독서 후 기도> :** (모두 일어선다.)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놀라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굽어보시고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어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

---

<구약의 마지막 독서와 화답송과 기도가 끝나면 파스카 초의 불을 제대초에 붙이고 대영광송을 시작한다.>

## 대영광송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서 간 : 로마서 6장 3절-11절**

**안 내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 상 :**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사실은 죄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 환호송 :** 364번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16장 1절-7절

**강 론 :** ‘굴려져 버린 돌- 일치와 평화에로의 부활’(4-5)

**세례 서약 갱신** (교우들은 다시 촛불을 켜 든다.)

**안 내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례 때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힘차게 서약합시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 시기의 여정을 마치며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보편 지향 기도

예물준비성가 : 132번 ‘감사의 송가를’

영성체성가 :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 영성체 후 묵상

주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오늘,  
진정 그 축제가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욕망과 그릇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 <침묵>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들뜬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일상의 평화이며,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일 것입니다.  
오늘의 축제가 나의 변화와 내일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몸과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 예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돌문을 열고 새 생명이 되어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어둠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며 정성껏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입당성가** :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 본기도

†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장 34절. 37절-43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묵 상** :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부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예언과 말씀에 대한 완전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화답송**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 독서 : 콜로새서 3장 1절-4절

**안 내** :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묵 상** :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죽음으로 지상의 온갖 오류와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 속 가** : 매일미사 27쪽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

**복 음 : 요한 20장 1절-9절**

**강 론 : ‘부활 대축일 교구장 메시지(1-3)’**

**예물준비성가 : 133번 ‘부활 송가’**

**영성체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영성체 후 묵상**

어둠이 짙은 시간부터 부활의 여명은 온 누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찾아온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담과 절망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막달레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길을 나섭니다.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낙담하고 웅크린 이들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합니다.

<침묵>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은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

하느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알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 1.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2.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3.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 4.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5.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2

- 일시 : 4월 9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사제연수

- 일시 : 4월 16(월) 14:30 - 18일(화)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 2018년 안동교구 성소주일 행사

- 주제 : “내가 너와 함께 있다.”(예레 1,8)
- 일시 : 4월 22일(주일)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청년들
- 준비물 : 미사준비, 점심도시락, 돗자리, 식수, 명찰(달고 오기)
- 신청 : 4월 6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8일(부활 제2주일) : 태화동 본당
- 4월 15일(부활 제3주일) : 신기동 본당 (견진성사)
- 4월 29일(부활 제5주일) : 개운동 본당 (견진성사)

■ 우리농 소비자회원 강좌

- 일시 : 4월 4일(수) 10:30  
유기농 우리밀 고추장 만들기  
(재료비 : 16,000원)
- 일시 : 4월 9일(월) 10:00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무료)
- 장소 : 나섬식생활교육원(목성동성당 밑)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4월 27일(금)19:00 - 2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미혼남녀,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9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교구청 ‘성모의 밤’

- 일시 : 5월 1일(화) 19:00 - 21:30
- 장소 : 교구청 잔디 광장 및 성모동산
- 주최·주관 : 안동교구여성연합회
-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 구성 : 목주기도, 미사, 작은 음악회
- 준비물 : 깔개, 겹옷, 미사 준비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목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 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수합)

■ 생명환경연대 봄철 생태기행

- 일시 : 5월 12일(토)
- 장소 : 백두대간 낙동강 세평 비경길 (승부역 - 분천역 구간)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함께 걷고 싶은 분  
5월 6일까지 선착순 120명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북부 정장훈 010-3827-2275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2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2018년 2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5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